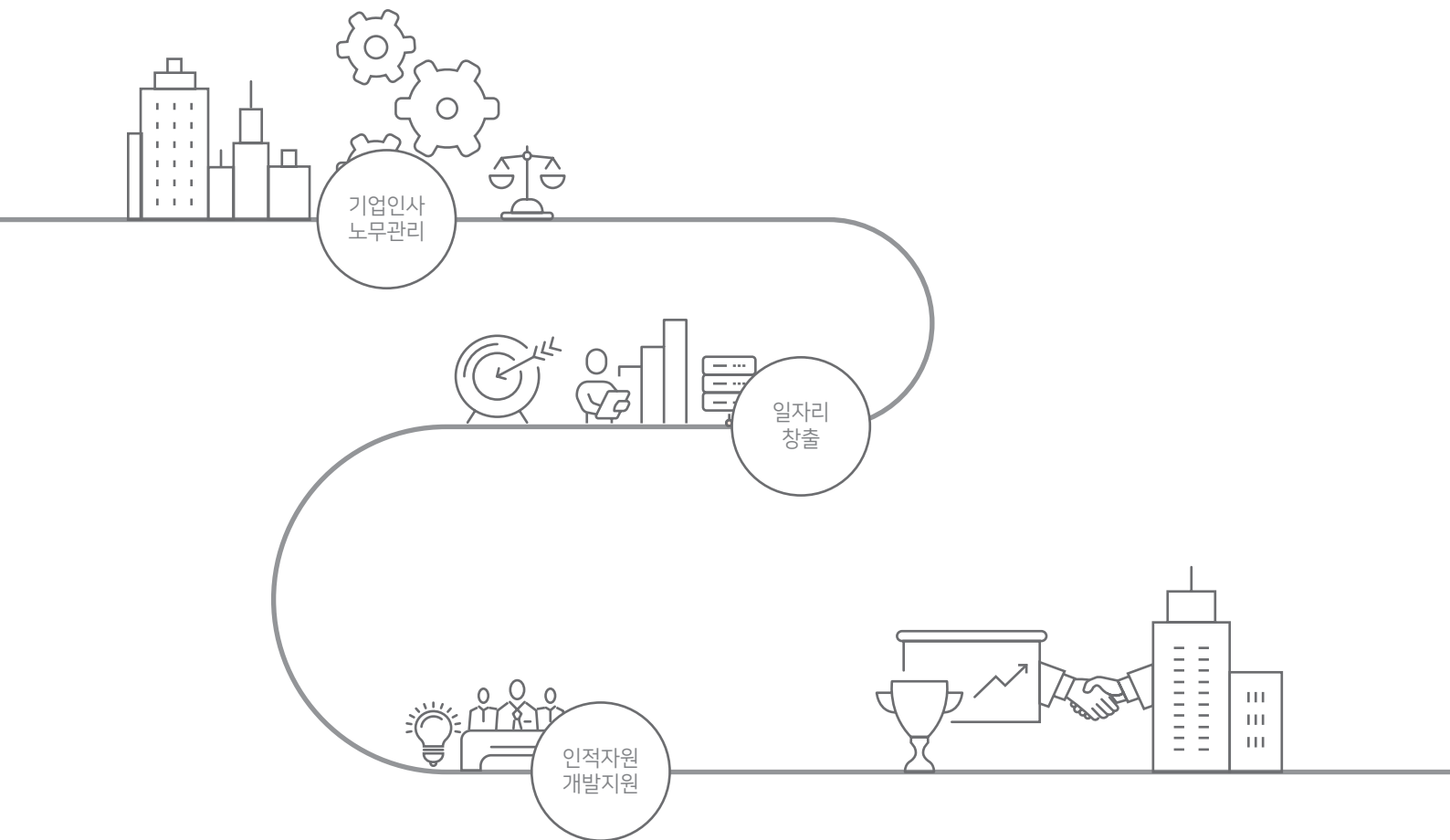


- 주간 - 광주 경영계



광주은행

◆ 지역인재 양성 위해 대학생 홍보대사 선발 및 발대식 가져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최근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ESG[Enviro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실천의 일환으로 대학생 홍보대사 14기를 선발해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광주은행 14기 대학생 홍보대사는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1월까지 광주은행 ESG공헌활동 참여와 브랜드 홍보, 유스(Youth) 고객과의 소통,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대학생

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젊음의 에너지로 광주은행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탄탄한 기본을 갖춘 역동적인 강소은행으로서 지역민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창조적이면서 협동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 지역 인재인 대학생 홍보대사 역할이 중요하다”며, “광주은행의 일원으로 함께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본인 스스로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 IRP 수익률 은행권 전체 1위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2024년 1분기말 기준 퇴직연금 IRP(개인형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 운용 수익률(최근 1년간)이 연 17.58%로 은행권 1위, 전체 42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 보험사 포함) 중 2위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난해에도 IRP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 수익률 비교에서 2분기와 3분기에는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중 1위, 4분기에는 은행권 1위를 각각 달성

한 바 있다.

광주은행 배인명 신탁연금부장은 “퇴직연금 ETF 상품 라인업 확대를 통해 고객님들께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 주효했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를 통해 고객님들의 풍요로운 노후 자산 확보와 은퇴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 '지역업체 키워 전국 브랜드화' 상생 호평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현지법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역 브랜드를 발굴해 전국화에 기여 하는 광주신세계가 되겠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대표 이동훈)가 지역 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펼친 지원 활동이 호평을 받고 있다.

9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대표적인 성과론 지난 2019년부터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에 입점한 '궁전제과'와 '소맥베이커리'를 꼽을 수 있다.

이동훈 대표이사는 "광주신세계는 고객들에게 맛의 신세계를, 지역 업체엔 기회의 신세계를 활짝 열어주기 위해

지역 브랜드를 발굴해 전국화에 기여 하

금호타이어

◆ '이노뷔', 현대N페스티벌서 성능 입증해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전기차 전용 레이싱 타이어 이노뷔(EnnoV)를 장착한 쏘라이트 인디고 레이싱팀의 박준의 선수와 DCT 레이싱팀의 김영찬 선수가 지난 11일~12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현대N페스티벌 eN1 클래스 1, 2라운드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이노뷔를 통해 기존 EV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차세대 모빌리티의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전기차 시

장의 혁신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퍼포먼스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이노비 런칭과 함께 신규 캐릭터 '또리' 선보여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정일택)가 전기차용 타이어 브랜드 'EnnoV(이노비)' 출시와 함께 전기차용 타이어를 캐릭터화한 '또리'를 대중들에게 공개했다.

또리는 앞으로 1개월, 1년, 5년 등으로 성장하는 에피소드를 담아 금호타이어의 전기차용 타이어 개발과 발전이 중심이 되어 활동할 계획이다. 앞으로 또리는 금호타이어 광고뿐만 아니라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오프라인 행사 등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관계자는 "캐릭터를 통해 고객들에게 친밀감을 높이고, 타이어의 기능과 안전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금호타이어'라는 기업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보해양조

◆ 다시마 담은 소주 '다시, 마주' 출시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해조류 다시마를 핵심 재료로 한 소주 '다시, 마주'(사진)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제품명인 '다시, 마주'는 '다시마를 활용해 만든 소주'라는 의미와 함께 사람들이 다시 서로를 마주해 가치 있는 순간을 공유하자는 소망을 담았다.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는 "꾸준한 연구 끝에 지역 원료를 사용해 부드러운 소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을 개발

하게 되어 아주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조화롭게 발전해 나가기 위한 고민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KDN

◆ 중기 보호 '기술임치 수수료' 계속 지원



한전KDN(사장 김장현)이 중소기업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기술 임치 수수료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기술자료 임치'는 대·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에서 서로 합의해 핵심 기술 자료와 영업비밀을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의 '기술자료 임치센터'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보안 관리는 안정적 사업수행과 기업 유지의 필수사항"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 조성으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기여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제안 혁신 DESK' 확대 상시 운영



한전KDN(사장 김장현)이 국민과의 경영 소통을 위해 온라인 혁신 제안 플랫폼 '국민제안 혁신 DESK'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제안 혁신 DESK'는 국민의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원활히 소통하기 위한 한전KDN의 대표적인 혁신 소통 채널이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해 올해 상시 제도화했다.

김장현 한전KDN 사장은 "공공기관의 경영은 국민의 생활과 연관이 있기에 국민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제안 혁신 DESK'를 통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기대하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전MCS

◆ 좋은이웃들 사업 협력



한전MCS(사장 정성진)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7일 복지소외계층 발굴과 민간자원 연계 지원하는 '좋은이웃들' 사업에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좋은이웃들’ 사업은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복지소외계층을 상시 발굴·지원하여 민간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140개 시군구에서 지역주민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정성진 사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4100여명의 전력매니저들이 전국에서 검침업무를 하는 한전MCS(주)의 업(業)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좋은이웃들 사업과 만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전력을 넘어 국민의 삶을 증진시키는 안전한 에너지 서비스 제공과 국민 행복을 책임지는 ESG선도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에너지

◆ 경영실적 공유를 통한 전임직원 소통의 시간 가져



고객과 함께 미래를 밝히는 친환경 종합에너지기업 (주)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희)는 지난 9일 광주광역시 (재)빛고을장학재단(이사장 강기정)에 장학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시가 빛고을 장학금 대상 학생을 500명으로 확대하고 장학금 규모 또한 3억 8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회사도 적극 동참하였다.

정희 (주)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광주지역 인재들의 꿈과 내일을 응원하는데 소중히 사용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지속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기업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알림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최수용 팀장

● e-mail: gjef3425@naver.com

<제1648회 금요조찬 포럼>

반도체 주권국가 그리고 AI에이전트 시대

(박영선 前장관)

1648회 금요조찬포럼은 박영선 前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하여 「반도체 주권국가 그리고 AI에이전트 시대」를 주제로 반도체가 미치는 국가 안보, 경제력 등에 대한 이야기하였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했습니다. 이 전쟁은 미국이 가장 많은 폭탄을 투여하고도 실패한 전쟁이고 미국에 큰 상처를 준 전쟁입니다. 당시 65만 5천 톤의 폭탄을 사용했는데 명중률이 9.2%의 명중률을 기록합니다. 미국이 베트남전에 실패하고 분석하는 중 반도체를 찾아내게 됩니다.

25년 후 걸프전에서 미국의 폭탄 명중률은 59.1%로 높아집니다. 또 반도체는 미국의 아폴로 우주 계획에도 사용됩니다. 우주 로켓이 날아가는 거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하느냐 속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하느냐는 반도체가 결정합니다.

반도체는 경제, 군사, 안보, 우주 산업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반도체는 한국이 메모리칩의 44%, 프로세서의 8%를 생산하고 있고, 대만이 프로세서 칩의 44%, 최첨단 칩의 90%를 생산하고 있고, 일본이 17%, 중국이 1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와 미중 갈등을 겪으면서 더 이상 반도체 서플라이체인을 이대로 나눠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정책을 바꿉니다.

미국은 중국이 시장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불평등을 없애고, 민주화와 개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현실은 철강, 청정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첨단생명공학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서 국가자본주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지난 30년 간 미국의 제조업과 미래 핵심기술 경쟁력도 약화됐다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발표합니다.

미국이 발표한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르면 ▲미국 경제정책 리더십의 변화,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 ▲오일 경제에서 재생에너지로의 변환, ▲높은 울타리와 작은 마당 정책을 통해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 바이오 산업의 첨단 기술은 미국이 직접 하겠다고 합니다.

반도체는 한 국가에서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와, 프로세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소재부품은 일본과 유럽이 담당해 왔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만 들어나갈 뉴 서플라이체인에 대한민국이 주권국가가 되지 않으면 소련이 스푸트니크 위성을 발사하고 34년 만에 망했던 역사가 있듯이 한국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에도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최근 광주에 AI 데이터센터가 건립됐습니다. 판교에 있는 기업들이 AI 로직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주에 있는 AI 데이터센터의 슈퍼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이게 광주에 새로운 활력을 넣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원님들도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동향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4년 공정채용 컨설팅 사업' 안내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업의 맞춤형 인재 확보를 지원하고 민간에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채용지원 컨설팅 제공 사업 실시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기업
 - (주요 수행내용) 채용절차법 등 채용 관련 법률 자문 및 관련 사업에 대한 기본 상담
 - (운영기간) ~ 10. 31.(목), 09:00~18:00(평일, 공휴일 제외)
 - (참여방법) 카카오톡 채널 : '공정채용' 검색 후 채널 추가 ⇨ 상담 신청
- 유선전화 : 1800-9582
- 이메일 : fairrecruitment@hrdkorea.or.kr 등 신청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5.2)

- OECD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일시적 소강국면(Soft patch)에서 벗어나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았으며, 2024년 2.6%, 2025년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
 - ※ '24.2월 OECD 전망치 대비 2024년 0.4%p, 2025년 0.1%p 상향 조정
-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 2.6%, 2025년 2.0%로 전망
 - ※ '24.2월 OECD 전망치 대비 2024년은 0.1%p 하향 조정, 2025년은 동일함.
- OECD는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노동·연금 등의 구조개혁을 권고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재정준칙 도입, 외국인력 유입 확대, 청년고용 확대, 노후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연금개혁 등을 제시함. 또한, 상품시장 규제 혁신, 중소기업 지원 간소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추진과 기후대응 노력 강화도 권고.
- 한편, 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2024년 3.1%, 2025년 3.2%로 전망
 - ※ '24.2월 OECD 전망치 대비 2024년 0.2%p, 2025년 0.2%p 상향 조정
 - 성장경로 상 위험요인은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당하며, 지정학적리스크, 고물가·고금리 영향 장기화, 금리인하 지연 시 자산시장 위축 소지, 중국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 등을 불안요인으로 지적.

◆ 한국은행, 「2024년 3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5.9)

- 2024년 3월 경상수지는 69.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4.3억달러 적자) 대비 흑자로 전환
 - ※ 경상수지는 '23.5월(23.0억달러 흑자) 이후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 ▶ 경상수지 추이(억달러, 한국은행) : 38.9('23.11)→ 74.1(12)→ 30.5('24.1)→ 68.6(2)→ 69.3(3)
 - 상품수지는 80.9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11.8억달러 적자) 대비 흑자로 전환
 - ※ 상품수지는 2023년 4월(6.1억달러 흑자) 이후 12개월 연속 흑자 기록
 - ▶ 상품수지 추이(억달러, 한국은행) : 68.8('23.11)→ 80.4(12)→ 42.4('24.1)→ 66.1(2)→ 80.9(3)
 - 서비스수지는 24.3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19.7억달러 적자) 대비 적자 규모가 확대
 - ※ 서비스수지는 2022년 5월(2.8억달러 적자) 이후 23개월 연속 적자 기록
 - ▶ 서비스수지 추이(억달러, 한국은행) : △22.1('23.11)→ △25.4(12)→ △26.6('24.1)→ △17.7(2)→ △24.3(3)
 -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18.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30.8억달러 흑자) 대비 흑자 규모가 축소
 - 이전소득수지는 5.6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동월(3.6억달러 적자) 대비 적자 규모가 확대
- 2024년 1분기 기준 경상수지는 168.4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분기(59.6억달러 적자) 대비 흑자로 전환
- 2024년 3월 금융계정은 110.6억달러 순자산 증가 기록

◆ KDB미래전략연구소, 「최근 전세계 산업정책의 특징」 발표 (5.7)

- 5월 7일 KDB미래전략연구소는 IMF가 발표한 “The Return of Industrial Policy in Data” 보고서('24.1월) 내용을 정리한 「최근 전세계 산업정책의 특징」을 발표.

〈 주요 내용 〉

- IMF는 국가들의 산업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23.1월부터 전세계 산업정책 현황을 조사. 동 조사는 GDP의 94%를 차지하는 75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정책을 정책개입의 동기, 개입의 대상, 정책도구별로 구분.

*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국내의 기업, 산업 또는 경제활동을 개발하거나 지원하는 정부의 개입을 뜻하며, 신산업정책은 과거의 철강·자동차 부문의 경쟁력 강화라는 전통적인 목표에서 지원부문의 범위와 목표를 확장한 것이라고 정의함.

** 미국, 한국 등 국가 단위가 기본이나, European Union, Gulf Cooperation Council 등 경제 공동체 포함.

- (동기) 국가 안보, 지정학적 고려, 공급망 복원,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기후대응
- (대상) 저탄소기술, 이중용도(민간, 군사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 서비스 및 기술), 중요 광물, 첨단기술, 철강 및 알루미늄, 반도체, 의료, 기타(IT 또는 디지털서비스)
- (정책도구) 수출장벽(수출금지, 수출 라이선스, 관세 및 쿼터 등), 수입장벽(수입금지, 반덤핑, 상계관세 등), 국내 보조금(생산보조금, 가격안정화 조치, 대출보증 등), 수출 인센티브(수출보조금, 무역금융 등), FDI(FDI 심사 및 진입·송유 요건 등) 등

○ 전세계 산업정책에서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0.9%이며, 특히 중국·EU·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7.7%를 차지('23년 기준). 정책도구 측면에서는 선진국·신흥시장·개발도상국 모두 국내 보조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국가의 재정여력과 행정능력 등에 따라 상이*.

* 캐나다, 독일, 일본, 한국의 경우 수출 인센티브를 선호하고, 중국, 인도, 러시아의 경우 수출장벽 사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저소득 개발도상국은 수입장벽에 주로 의존

- (정책 동기별) 산업정책의 사용동기는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가 가장 크지만, 그 외 기후 대응, 공급망 복원 등도 증가하는 상황.

※ 정책 동기별 비중 :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37.0%), 기후대응(28.1%), 공급망 복원(15.2%), 기타(국가 안보 및 지정학적 고려)(19.7%)

- (대상별) 지원 대상으로는 이중용도, 첨단기술·반도체·의료, 저탄소 기술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전통적 산업정책의 대상이었던 철강 및 알루미늄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

※ 대상별 비중 : 이중용도(25.7%), 첨단기술·반도체·의료(20.6%), 저탄소 기술(15.3%), 철강 및 알루미늄 (10.1%), 중요 광물(3.0%), 기타(25.3%)

○ 분석 결과, 산업정책은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을 지원하고 타국의 산업정책이 자국에 영향을 미칠 경우 맞대응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경향이 있음. 또한, 정치적 요인, 구조적 요인(국가의 수출 집중도 등) 및 순환적 거시경제 요인(실질실효환율 변동 등)이 산업정책의 사용 요인으로 작용.

* 실제 중국, EU, 미국의 경우 주요국으로부터 보조금 정책에 영향을 받을 경우 1년내에 똑같이 보조금 정책을 시행할 확률이 평균 73.8%였음.

2. 노사동향

◆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임금 관련 근로감독 강화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 정책 지속

-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고용부는 5. 8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노조 회계 공시 결과' 발표
 - ※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는 해당 노조와 그 상급단체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할 경우에만 소속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15% 세액 공제
 - 상반기 공시 대상 노조의 전체 공시율이 89.4%를 기록한 가운데 회계 공시에 참여한 노조의 2023년 연간 수입 총액은 6,4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는 매년 4. 30까지 직전 연도 결산을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연도 종료일이 12. 31이 아닌 경우 등은 하반기 추가 기간(9. 30)까지 공시 가능
 - 한국노총 산하 노조는 97.6%, 민주노총 산하 노조는 82.5%가 회계 공시 (한국노총및산하조직총수입: 약2,513억, 민주노총및산하조직총수입: 약 3,400억)
 - 민주노총 산하 최대조직인 금속노조는 회계공시 거부(2. 28「대의원대회」결정)
- 한편, 고용부는 5. 8 음식점,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고의·상습 임금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착수
 - 고용부는 그 동안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왔으나, 금번에는 임금체불 신고 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의·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을 선별해 특별근로감독 실시

◆ 경총은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 결과 발표(5. 8)

- ※ 설문조사 기간 및 대상 : 2024. 3. 26 ~ 4. 5, 200개 기업 임원
-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88.1%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동개혁이 필수'라고 답변했으며, 제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84.6%로 집계
 - 응답 기업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우선 추진 입법과제로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등을 꼽았으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

[참고]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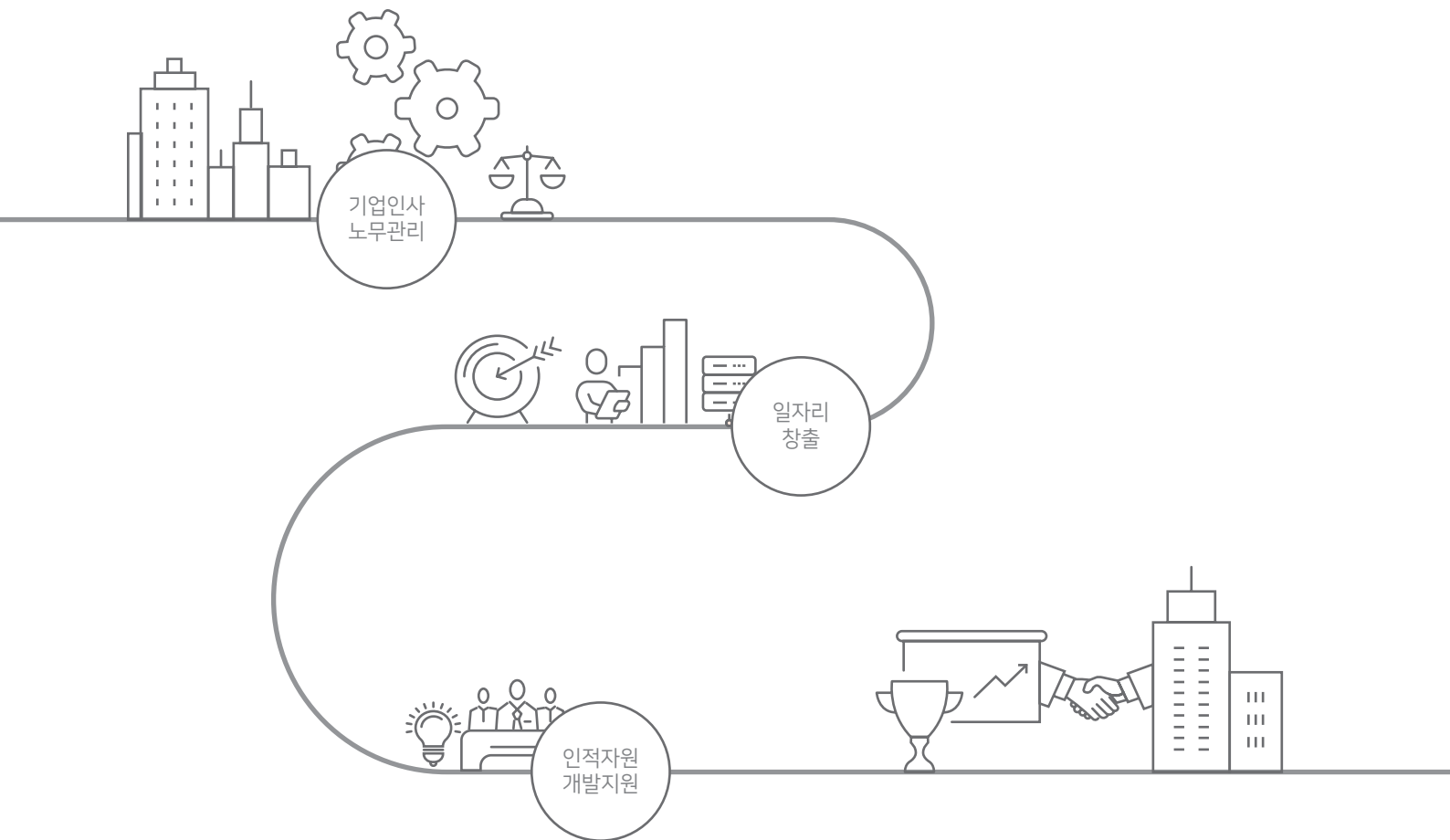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우선 추진 입법 과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
※ 기타 1.7%	※ 기타 1.2%

- 한편, 응답 기업들은 노동시장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입법으로 ①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34.3%), ② 노조법 제2,3조 개정(20.4%) 등을 지적

◆ 산업현장에서는 고율의 임금인상, 근로시간면제 등을 둘러싼 임단협 난항 우려

-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법정 한도 내 근로시간면제자 축소 등 시정조치 이행을 추진 중에 있으나, 금속노조 산하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를 거부
- ※ 고용부는 지난해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근로감독(2023. 9. 18~11. 30, 202개소 대상) 결과 109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인원, 시간) 위반 등 위법사항 적발
- 현대중공업지부는 5. 8 시정 조치 이행을 회사의 일방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노사 교섭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자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
 -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4. 30 ▲월 기본급 159,800원 인상, ▲정년연장(국민연금 수급연령과 동일), ▲성과급 산출기준 변경 등이 포함된 임단협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
- 금속노조 산하 주요 완성차사 지부가 올해 임단협에서 고율의 임금인상 및 과도한 성과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임단협 난항 우려
- 현대자동차지부는 5. 8~9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월 기본급 159,800원 인상, ▲성과급 (2023년도 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900%, ▲정년연장(국민연금 수급연령과 동일) 등 임단협 요구안 확정
 - ※ 기아차지부는 6월 초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임단협 요구안을 논의할 전망
 - 한국GM지부는 지난 4. 25 ▲월 기본급 159,800원 인상, ▲당기순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신차 2개 차종의 국내 공장 생산 등이 포함된 임단협 요구안 발표

2024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2024년도 광주경총 기업지원 사업안내

NO	사업명	지원대상	기업지원(금액)	문의 (062)
1	청년 일도약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 이상 우선지원기업 ◦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 : 1인 720만원 (월 60만원) ◦ 2년 후 : 1인 480만원 	716-3424
2	뿌리 일도약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역 뿌리기업 중 청년, 신중년, 중장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 만 35세 ~ 49세 채용 시 ◦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간 : 1인 720만원 (월 60만원) 	716-3503
3	중장년 내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인 이하 중소기업 ◦ 만 40세 이상 재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자 이전직 상담, 생애설계 등 기업별 무료 상담 	609-8964
4	청년성장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지역 신규 인력채용 기업(관리자, 및 청년층 신입직원) ◦ 신규 채용기간 : 최근 1년 이내 ◦ 청년층 연령 : 만 15세~3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친화 조직문화 및 직장 온보딩 프로그램 제공 	654-3427
5	복구 굿잡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 및 북구 일대 중소기업 ◦ 광주광역시 구직자(취업준비 청년, 여성, 중장년 등) ◦ 지역 내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혹은 지역 인재를 구인하는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일자리 동영상 제작 ◦ 취업매칭 지원 ◦ 고용부 워라벨 인증지원 	654-3427
6	공동안전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위 형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월 1회 이상 방문 컨설팅) ◦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 	716-3501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